

관점’ (The Beholding Eye : Ten Versions of Same Scene) 에서 ‘관찰자의 편견’ 을 탐구했다. 그는 “어떠한 경관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머리속에 있는 경관으로서 구성되어진다” 라고 기술하였다. 경관의 10가지 다른 지각을 논의하였으며, 두 번째 눈에서는 거주지로서의 경관으로 인간은 경관을 조작하지만 경관의 풍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관을 조화시키고, 보호하고, 배양하고 관리하고자하는 욕구에 의해 성취동기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 눈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의 경관으로 경관의 자연적, 인공적 요소 모두에 적용된다. 오존의 고갈, 오염된 공기, 도시 범죄, 버려진 주택, 망쳐진 해변, 오염된 하구와 하천, 침식된 토지, 도시 빈민가와 도시의 평면적 확산, 혼잡, 퇴락한 건물은 이같이 복잡한 경관 문제의 물리적 증거로 보여 진다고 하였다.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삶을 느끼는 요인에서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는 만족감과 거주성으로 이는 기억, 전통, 의미, 상징, 관습 등이 적재된 장소성에서 시작된다. 이를 고려하여 현상학적 장소론을 적용하여 생태문화도시의 구성요소에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지표를 그 정의와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제시하였다.

<표 39> 최종지표 및 개념 정립 과정

